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구상

전례가 없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합쳐졌다. 오래된 전통은 과학자 및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탐구와 지식을 위해 무료로 학술지에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새로운 기술은 바로 인터넷이다. 이들이 가능하게 하는 공공의 이익은 동료 평가(peer-view)를 거친 학술문헌이 전세계에 걸쳐 전자적으로 유통되고 모든 과학자, 학자, 교사, 학생 및 이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조금도 제한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헌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연구를 촉진시키고, 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부자들이 학습한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와 공유하고, 이러한 문헌을 최대한 유용하게 만들고, 인류를 공동의 지적 대화 및 지식에 대한 탐구 속에서 하나로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가 오픈 액세스라 부르게 될 이러한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온라인 가용성은 아직까지는 소수의 학술 문헌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분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양한 구상들을 통해 오픈 액세스가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들이 적절한 문헌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하며, 작가와 저작물에는 광범위하고 괄목할만한 새로운 가시성, 리더쉽 및 영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들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관심 있는 연구기관 및 개인들이 다른 문헌에도 접근권을 제공하고, 이를 가로 막고 있는 -특히 가격 장벽과 같은-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대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록,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가 오픈 액세스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 해야 할 문헌은 학자들이 대가 없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범주는 동료 평가를 거친 학술지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그들이 평가를 받거나 동료들에게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온라인에 게재하는 출판전의 저작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헌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더 광범위하고 더욱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헌에 대한 “오픈 액세스”는 공중 인터넷 망에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용자들은 인터넷 자체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재정적, 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 받지 않고, 이러한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이를 색인으로 만들기 위해 크로울(crawl)하고 이를 데이터로 소프트웨어에 전달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의 재생 및 배포에 대한 유일한 제약 및 저작권의 유일한 역할은 저자들에게 자신들의 저작물의 원본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인정받고 인용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지는 온라인에서 독자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실험들을 통해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는 전체 비용이 전통적인 배포 방식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배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존재함에 따라, 전문가 협회, 대학, 도서관, 재단 및 기타 등이 자신들의 직무를 진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오픈 액세스를 수용할 만한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 오픈 액세스를 갖추는 것은 새로운 비용 회수 모델 및 자본 조달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지만, 상당히 낮은 총 배포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가 성취가능하고 단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학술 문헌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보완 전략을 권장한다.

I. 셀프 아카이빙: 첫째, 학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학회지 논문을 공개된 전자 아카이브에 맡기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셀프 아카이빙이라 부른다. 오픈 아카이브 구상에 따라 수립된 기준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아카이브들은 검색 엔진 및 툴에 의해 하나의 아카이브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어떠한 아카이브가 존재하고 자신들이 찾고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진다.

II. 오픈 액세스 저널: 둘째, 학자들은 오픈 액세스를 전담하는 차세대 학술지를 출간하고,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기존의 학술지들을 도울 수단을 필요로 한다. 학술지 논문은 가능한 널리 보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학술지들은 출판 자료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는 저작권 문제를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비용이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학술지들은 구독료 또는 접속료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수단에 의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 조달을 위한 많은 대안이 존재하는데, 연구의 자금을 대는 재단 및 정부, 연구원을 고용하는 대학 및 실험실, 학과 또는 기관, 오픈 액세스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후원자가 제공하는 기부금, 기본 문서의 부가물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 전통적인 등록비 또는 접속료를 부과하는 학술지의 소멸 또는 취소로 인해 자유롭게 된 기금 또는 심지어 연구자들의 기부금 또한 이에 포함된다. 모든 분야 또는 국가들을 위해, 이러한 방안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다른 독창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그만 둘 필요도 없다.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 문헌에 대한 오픈 액세스가 바로 그 목표이고, **셀프 아카이빙(I)** 및 차세대 **오픈 액세스 저널(II)**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학자들 스스로 즉시 이용 할 수 있고 시장 또는 법률 제정을 통한 변화가 초래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앞서 간략하게 기술된 이 두 전략을 지지하면서, 또한 현재의 배포 방식에서 오픈 액세스로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식을 통해 실험을 권장한다. 현지 상황에 대한 유연성, 실험 및 적응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진보가 신속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자선 사업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 네트워크인 열린 사회 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도움을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열린 사회 연구소는 기관적인 셀프 아카이빙을 확장하고 촉진하며, 새로운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출간하고 오픈 액세스 저널 시스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소의 자원과 영향력을 활용할 것이다. 열린 사회 연구소의 헌신과 자원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본 구상은 다른 조직의 노력과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오픈 액세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 학술지 편집인, 출판인, 재단, 지식 사회, 전문가 협회 및 개인 학자들의 동참을
권하는 바이다.

2002,2 월 14

헝가리, 부다페스트

<http://www.soros.org/openaccess/read.shtml>

<http://latranslation.com/languages/korean>